

창립: 1991. 12. 29.

제32-17 2023. 04. 23.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5월 2일(화)

성인 알파 초대만찬

5월 4일(목)

마더와이즈/파더와이즈

자유과정 개강

5월 6일(토)

기도학교 개강

5월 20일(토)

부부학교 개강

5월 27일(토)

제2기 교사대학 개강

대 예수교장로회
양주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접견실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2. 오늘 목자 모임이 1시 30분에 조이홀에서 있습니다.
3. 교회 장소 사용 후 의자 정리에 대해 어린이 안전 문제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룸의 의자 정리시 4단으로 쌓고 혹시 더 높게 쌓여 있는 것을 보시면 누구든지,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도학교 개강 안내(8주 과정)
일정: 5.6(토) - 6.24(토) 오전 10시
장소: 비전홀.
회비: \$30(교재비 포함)
문의: 채금희 권사 021 569 056
5. 마더와이즈/파더와이즈 자유과정 게스트를 모집합니다.
개강: 5월 4일(목) 10am, 7:30pm
(신입 개별 오리엔테이션: 4월 27일)
6. 2023년 부부학교 제11기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부부학교 수료생
개강: 5월 20일(토)
문의: 김규영 집사 022 029 9838
7. 한우리 문화센터 텀2 개강 안내
접수: 4월 24(월) ~ 29(토)
텀2: 5월 1일(월) ~ 6월 24(토)
문의: 이상용 021 821 190

교육부서 및 교육위원회

- 교육부서 수요일모임 '토브' 개강: 4월 26일
- 교사대학: 5월 27일(토) 10시

전도부

이번주일 거리전도는 오후 3시, 타카푸나 비치 어린이 놀이터 앞입니다. (우천시에는 스타벅스 건너편입니다)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월	일	목장 & 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4	23	느헤미야 / 히엘필리핀 / 헤세드누쿠알로파
	30	로덴나무평양 / 도우라안디옥 / 통가 / 미안바
5	7	Central 오클랜드 / 바나바 / 임마누엘싱가폴

인천장로 성가단 초청: 힐링콘서트

날짜: 4월 29일(토) 7:00pm @ 한우리 교회



리바이브 패밀리 워크샵

"건강한 감정이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장소: Zoom 온라인

시간: 5월 2-23일 매주 화요일 저녁7-9시

회비: 부부 \$100, 개인 \$80

문의/신청: 봉원곤 가족치료사 021 232 7658

wonkon@revivefamily.co.nz

교우동정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기 알파코스 게스트 모집

기간: 5월 2일(화) - 6월 27일(화) 6:30~9:00pm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이 있을까?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와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길 원하시는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문의: 이종길집사 021 194 8008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 삼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구약에서 부모에 대해 불순종할 경우에 관한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3.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하는 지를 메시지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세요.
4. 이번 메시지를 통해 내게 주시는 교훈을 한가지씩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아프리카

“주께 구하오니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서아프리카·중앙아프리카 4천800만 명 극심한 식량 위기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서 4천800만 명이 극심한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높은 기온과 불규칙한 강우량과 같은 기후 충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과 비료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지역 식량안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등 이슬람 급진세력의 준동으로 2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사헬 지역에서는 4만 5천 명이 기근에 조금 못 미치는 심각한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식량 부족은 올해 5세 미만의 어린이 약 1천 650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로베르 구에이 FAO 서아프리카지역 조정관은 “농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북한

“피곤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주소서” 태양절 행사 동원에 피로감 호소하는 북한 주민들

지난 4월 15일은 북한의 태양절, 즉 김일성 주석의 생일 11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68년에 공휴일로 지정된 후 1974년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로 기념하다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 3년이 지난 1997년에 ‘태양절’로 지정됐다.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는 ‘태양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당에서 전국의 모든 단위와 기관, 공장, 기업소, 학생, 인민반 주민들에게 ‘태양절’ 경축 분위기를 띄우는 행사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학생들은 분별 행진, 소년단 입단, 녀맹(여성 연맹)과 사로청(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공장 노동자들은 단위별 충성의 노래 경연과 군중무용으로 ‘태양절을 경축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요즘 갑자기 닥친 이상기후로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중국발 황사에 찬 바람까지 몰아치자 일부에서는 태양절을 저주하는 분위기까지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기 도 문

사랑하는 하나님,

- **[아프리카]** 여러 약재가 겹쳐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한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 **[북한]** 3대를 이은 지도자의 이상화 정책 속에서 궁핍한 삶에 지쳐있는 북한 주민들이 선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건강과 재정, 관계와 신분 등의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셔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